

# “국민 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소득사회로”

제11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 성료

여수서 복지사들 사명감·가치 되새겨  
김지사 “권의 신장·제도 개선 등 지원”

전남도는 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최근 ‘뜻밖의 행복’이란 주제로 제11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가 열려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소득사회로 가기 위한 사명감과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기영 여수시장,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22개 시·군 사회복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전남 사회복지의 미래를 함께 다짐했다.

행사는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대회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김영록 지사 기념사, 사회복지사 50명의 합창·선서를 진행한 주제 공연, 클로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전남사회복지사대회가 열려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소득사회로 가기 위한 사명감과 가치 등을 되새겼다.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22개 시·군 사회복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전남 사회복지의 미래를 함께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행사장 입구에서는 부대행사로 장애인 생산품, 시니어클럽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시·판매하고 홍보했다.

김영록 지사는 “사회복지사는 행복 전달의 자랑스러운 1등 공신으로서 대한민국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여기까지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왔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여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거듭 태어났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소득사회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전남도도 사회복지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 등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회 주제인 ‘뜻밖의 행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보람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1988년 10월 창립해 전남지역 1만2천여명의 사회복지사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용역’을 수립, 2021년부터 장기 근속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유급병가, 상해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종사자의 권익과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정기자

정태성 42대 여수해양수산청장 부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제42대 청장으로 정태성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정태성(57·사진) 청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사안전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정 청장은 최근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 최우선 행정 ▲정령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물류 중심지 여수항 등 ‘4대 핵심 비전’을 밝히며 새로운 여수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태성 청장은 “친환경 스마트항만 인프라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보성경찰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보성경찰서는 8일 “지난 5일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여성 등 외국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에는 경찰서 범죄예방·교통·여성청소년 등 각 기능이 합동으로 외국인 이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생활 속 범죄 예방 및 대응 요령 등 외국인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 위주로 교육 및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청취 등 경찰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멀리 타국에 와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은경 경찰서장은 “다문화 사회 급진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외국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치안 문제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을 통한 외국인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전남도 ‘금연·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전남도는 최근 영암 5일시장에서 금연 실천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남자의 흡연율은 35.4%로 10명 중 4명이 흡연하고 우리나라 국민 주요 사망 원인 10개 중 심뇌혈관질환이 4개(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고혈압)를 차지한다.

이에 전남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금연을 부탁해’ 슬로건을 내세워 30세 이상 중장년층을 집중 홍보 대상으로 삼았다.

전남도, 영암군보건소, 전남도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전남금연지원센터 등은 금연 실천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전단을 도민에게 나눠주며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합담·형담·일산화탄소 수치 및 심방세동 측정, 1대1 맞춤형 교육, 금연 클리닉 소개, 건강실천 퀴즈 등도 진행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흡연, 음주, 비만 등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광주시교육청 ‘제3기 청소년 정치학교’ 개강

광주시교육청은 8일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제3기 청소년 정치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치학교’는 시교육청이 청소년의 토론 참여와 사고력 및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40명이 참여했다. 개강식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청소년 정치 참여의 의미와 방안’을 주제로 특강

했다. 신 의장은 자신의 정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정치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정치 전문가 및 정치인들과의 대화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정책메이커’ 특강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토론대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다이지



## 전남도교육청, 서울서 ‘농산어촌유학’ 홍보 활동

전남도교육청은 8일 “지난 5일 서울재활용품 라자 일대에서 열린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참여해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초·중·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남농산어촌유학을 직접 알리고 2025년 2학기 유학생 모집을 위한 현장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홍보 부스를 통해 전남농산어촌유학의 취지와 교육적 가치,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

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부스에서는 유학 희망자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여건, 학사 운영 방식, 지역별 유학 특색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유학 중인 학생들의 사례와 체험 후기 등을 영상과 인쇄물로 제공했다.

심지숙 교육자치과장은 “전남농산어촌유학은 전남의 특성화된 작은학교에서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전남 유학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지



##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고교생 학과 체험 ‘성료’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최근 학내 여등관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고교생 대상 ‘3차 찾아오는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체험 행사에는 인옥남 학과장을 비롯한 전공 교수진과 학생회가 참여해 항공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 컬러리턴, 식음료 실습, 기내서비스 롤플레이 등 전공 분야별 특강과 실습을 2개 조로 편성해 운영했으며 참여한 고3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국 고교생 대상 맞춤형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다이지



## 광주매일신문,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NIE 3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민기(수문초 5)·우이라(수문초 2)·임우영(수문초 1) 학생은 신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과 기사를 직접 편집디자인 해봤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 담양경찰, 찾아가는 마을회관 교통안전교육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는 “최근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회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일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담양 농촌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법, 야간 보행 시 안전수칙, 이론차 및 농기계 운행 시 유의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의 설명과 함께 형광 반사조끼와 안전 홍보물을 배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마을회관 방문 홍보를 적극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광주노동청,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광주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인 노향도씨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노향도씨는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을 아직도 기억해 주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



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